

원없이 배우고 후회없이 가르치고 힘껏 일한 종장

경·울·론 삼장에 능통
인재양성·교학발전 주력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2005~2009년 재임)은 1932년 경북 영일에서 태어났다. 1947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 195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0~1972년과 1993~1996년에는 해인사 주지를 지냈다.

스님은 가야산 골프장 건설 논란이 한창이던 1995년 훼손 위기에 처한 가야산과 팔만대장경을 지키기 위해 '가야산 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저지' 해인총림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스님은 지역 주민, 환경단체들과 함께 골프장 건설 승인 계획 전면 백지화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은 2003년 대법원의 불허 판결, 2011년 환경부 고시 폐지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1982년 11월에는 '서울시 정회사회구현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01년에는 문화관광부 은관문화훈장 서훈, 2001년 조계종 포교대상, 2005년 만해대상 학술부문상을 수상했다.

지관 스님은 종단 내 각 종 최연소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28세에 강사에 임명돼

최연소 기록을 세웠고 38세에는 최연소 본사(해인사) 주지가 올랐다. 1986년에는 비구 최초의 대학 총장 기록도 갖고 있다.

경·울·론 삼장에 두루 능통한 스님은 "양심을 속이는 중들은 살지 말아라. 계율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다"는 율사 자운 스님의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며 율학관련 교재를 발간, 율종 진작을 위해 노력했다.

지관 스님은 법문에서도 평소 계율과 수행에 대해서 자주 강조했다.

스님은 2005년 동화사 통일 대불전에서 열린 '동화사 계율 수행 대법회'에서 범주로 나섰다. 이날 스님은 법문을 통해 "삼보 중 법보의 교리가 아무리 수승하고 오묘해도 교리 자체가 스스로 전파되지 못하기 때문에 승가가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계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하고 가혹한 조박심 없이는 대계 경의의 대상에 그칠 뿐이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2008년 광주 무악사 대중법회에서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재가불자들의 수행에 대해 법문을 했다. 당시 스님은 "흥거하는 물이 참 설법을 하는 것이다. 물은 흐르다가 장애가 있으면 돌아가고, 막아주면 고이고, 열을 가하면 더워지는 등 수처자재(隨處自在)하는 것이다.

대하는 것마다 다 수용하면서도 자기가 중심에 서야 한다. 중심을 세우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다른 이의 말에 흔들리게 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지혜를 익히는 것이 참선, 염불, 기도이다. 1초 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라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조심이다. 기도하면서 생활을 조심해야 한다. 입조심·몸조심·마음 조심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철순의 나이에도 하루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하루 10시간 이상 연구에 몰두했다. 스님은 가산불교문화원장을 지내며 동국대에서 명예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자가를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30년 이상 강단을 지켜온 경력에도 스님은 매년 1시간 전에 강의내용을 점검하며 꼼꼼하게 준비했다.

가산불교문화원장 시절 지관 스님의 손에는 늘 보우원고 목록과 각종 사업계획서, 아이패드 노트가 들려 있었다. 스님은 이 노트에 수시로 메모를 하면서 불교연구에 관한 생각을 항상 되짚어 보았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설립 때부터 스님과 함께 했던 고육 현원 스님은 강원을 졸업하던 1979년 경 해인사에 계신 지관 스님을

찾아갔다. 당시 고육 스님은 "스님께서는 아는 것도 많으신데, 왜 강사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종단에서는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해야 대접 받는데, 스님도 강의 스타일을 좀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지관 스님은 가만히 고육 스님을 바라보더니 "나니 공갈 많이 치고 살아라. 평생 동안 대장경 다 보고 배워서, 아들에게 가르치기도 바쁘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지관 스님은 말이 앞서서 것을 싫어했고, 한 가지라도 열심히 실천했을 하면 종단도, 자신도, 모두가 좋아진다고 생각했다.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인재 양성과 교학 발전에 독보적인 업적을 창출한 지관 스님은 한결 같은 모범으로 불자들에게 살아 있는 법문으로 존경 받아 왔다.

이같은 스님의 언행은 불교계는 물론 사회의 귀감이 돼 왔다. 정부는 1월 6일 지관 스님의 영결식에서 한국 문화예술발전예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해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 금관문화훈장은 문화·예술발전예공을 세워 국민문화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최고 등급의 훈장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hyunbul.com

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 '가산불교대사람'

생의 마지막까지 심혈

불교 연구와 저변 확대 기여

한국불교의 대표적 학승으로 꼽히는 지관 스님은 저술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스님은 생전에 <치문경론> <대혜서장> <도서> <선요> <철요> <요경서설> <남북전유부 율장비교연구> <비구니 계율 연구> <불교교단 발달사> <계율론> <조계종사> <가야산해인사지> <역대고승비문총서> 등의 저술을 남겼다.

특히 지관 스님이 마지막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저서가 <가산불교대사람>이다. 이 책은 1700년 한국불교사에서 일 반불교 및 한국불교 술어의 최초 결집으로 꼽힌다. 1999년 처음 출간된 <가산불교대사람>은 매년 2~3권이 발간될 출판이다. 당초 15권 완간이 목표였으나 내용이 늘어 20권 정도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현재 13권까지 출판됐다.

지관 스님이 처음 이 책의 출판을 발원한 것이 1982년이다. 스님은 당시 경국사 극락보전에서 3000배 기도와 함께 불교대사전 편찬을 발원했다. 그 후 18

년의 세월이 흘러 제1, 2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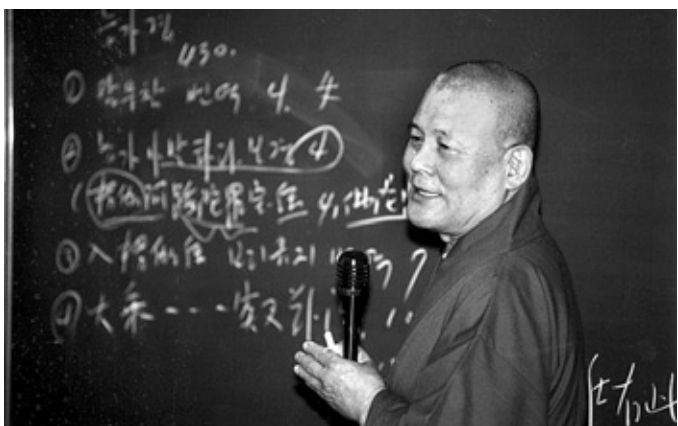
<가산불교대사람>은 이처럼 많은 이들의 원력이 모여져 15만여 불교 술어를 집대성한 대형 불사이다. 이 책은 한국 불교 관련 항목의 발굴과 인도불교에서 유럽불교학에 이르기까지 불교술어를 서술했으며 기존의 불교사전보다 한국 불교학목 30% 가량 새롭게 추출했다. 또한 한글 현대문으로 서술하면서도 한자어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티베트어 등 불교 원어를 병기했다.

지관 스님은 <가산불교대사람>에 첨가할 내용이 늘어남에 따라 생전에 20권까지 발간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유훈을 통해 이 책을 가산불교 문화연구원 연구실장 고육 스님에게 책임을 맡긴다고 밝혔다.

스님은 유훈에서 "아직 8.9권 정도 남은 완간이다. 이 사업이 외세의 간섭과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한편 나의 문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여하려거나 간섭하지 말라"고 전했다. 박기범 기자



1963년 4월 5일 해인사 강원 사교과 수료 기념식에서 도반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지관 스님(사진 앞줄 가운데)



<능가경>을 강의하고 있는 지관 스님



지관 스님이 2009년 아름다운 동행의 연탄 나누기에 동참하고 있다.



2009년 10월 30일 조계종 제32대 총무원장을 퇴임하고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는 지관 스님.

종단 화합과 안정 우선했던 총무원장

범불교 대회 열고 종교평화 꾸짖어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최초 시행
표준 '금강경' 편찬사업 전개

지관 스님은 2005년 제32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했다. 스님은 재임 기간 동안 종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며 특히 1998년 종단 분구 관계자들에게 대한 사

면은 화합조치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스님은 안정과 화합을 우선했지만 불교가 확대 받는 일에 있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공직사회의 불교 편향이 심각해지자 2008년 대규모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님의 강력한 대응은 공직자들에게 정교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또한 10·27법난 특별법 제정 및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등 불교의 사회적 위상 확립에 많은 노

력을 기울였다.

이 밖에도 불교계 최초의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을 출범시켜 중생을 먼저 생각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 실천하기도 했다.

2008년 시행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은 총무원장 재임 시절 지관 스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법의 시행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결계와 포살이 종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돼 현전승가의 수행과 전법, 청정성을 더욱 고양시켰다.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은 조계종 스님 누구나 하안거·동안거 시 결계신고를 하고, 결계지간 중 각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에 1회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하안거와 동안거 결계목을 통합해 연1회 발간해 종단 최초로 제방에서 수행하고 있는 종단 소속 스님들의 현황을 파악했다.

스님은 2009년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많은 대중이 알자 스님 한명 못 당하고 암자스님 수백이 토굴 스님 1명 못 당한다는 말이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정책 사업을 꼭 꼭 집행자면 결계포살의 시행이 아닐까 싶다"고 말할 정도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학승답게 지관 스님은 총무원장 재임 중에도 연구서 발간

작업에 매진했다. 2009년에는 한국불교 문화의 정수(精髓)를 책으로 모은 <한국전통 사상총서> 불교편 한글역 7권을 발간했다. 이 책은 원효 지눌 휴정 등 한국불교 대표 스님 저술과 화엄 등 제교학, 공안집과 선어록 등 선사(禪書), 문화, 비문(碑文), 계율 등 13권으로 구성됐다.

2009년에는 <조계종 표준 금강경>을 발간해 모든 종도들이 <금강경>을 쉽게 독송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2004년부터는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이 공동으로 협력해 간화선 대중화를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추진했다. 전국선원수좌회와 참여와 협조로 진행된 이 사업은 20여 차례의 토의를 거쳐 <조계종 수행의 길-간화선>을 편찬했다.

지관 스님은 또 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원 내에 '어린이·청소년팀'을 구성하고 집중 사업을 전개했다. 전담팀 구성은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청소년 포교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포교 중심 도량을 선정하고, 전문 지도 인력 양성을 위한 '불교 어린이 지도사 선발 및 관리 규정'을 제정했다.

스님은 이 밖에도 재임 기간 중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조계사 성역 불사,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 불교문화원, 국제선센터 설립 등을 추진했다. 불교가 국민들 곁에서 호흡하고, 수행과 전법의 역량을 축적해 한국불교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스님의 원력이 담긴 사업들이었다. 박기범 기자

대한불교가야법사대학 2012학년도 신(편)입생

법사 제9기생, 대법사 제8기생, 출가학승 제8기생 모집요강

본 교는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교육법 제58조에 의한 종단 종합대학으로서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기본교육기관입니다.

제9기 법사 과정 (출강통신) 2년 4학기	제8기 대법사 과정 (출강통신) 1년 2학기	제8기 출가학승 과정 (출강) 2년 4학기
-----------------------------------	------------------------------------	-----------------------------------

- 수업학과 :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포교사), 범음범패 의식학
- 일 시 : 매달 3회 강의 (일요일 1시 ~ 4시까지, 3시간)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교양식)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사진(중명) 3매
4. 동등자격소지사 특별 전형 입학

* 불교교육대학 제7기 과정모집 / 6개월 교재3권 입학원서

원서 접수 및 마감

- 2012년 1월 1일 ~ 2012년 2월 12일까지
- 면접일시 : 2012년 2월 13일 오후 1시

특 전

- 법사대학 졸업자에게는 포교사 자격증을 부여함.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시는 불자님, 그리고 어려운 수행속에서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정을 학습으로 공부하지 못한 스님께서는 특강하며 사암, 포교원 개설운영 과정으로 행정지원.
- 불교의식 교육원은 사물(목탁, 요령, 대경, 법고) 다루는 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및 상주권공, 대령, 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을 지도합니다.
- 불교교육대학 등록금 10만원. 법사, 대법사, 출가학승 등록금 1학기 50만원. 교재비 1학기 30만원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주소 :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43-1번지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
전화 055)345-9393, 346-5115

대한불교가야법사종 금화사 가야법사대학 불교의식교육원 총무원장 석해법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점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스님은 이 밖에도 재임 기간 중 한국불교 중흥의 기반 구축을 위해 조계사 성역 불사,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태화산 전통 불교문화원, 국제선센터 설립 등을 추진했다. 불교가 국민들 곁에서 호흡하고, 수행과 전법의 역량을 축적해 한국불교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스님의 원력이 담긴 사업들이었다. 박기범 기자

POWERED MIXER 앰프
PM-805

스테레오 앰프 300AN

DX-707 스탠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탠드 마이크
- 법당전용 스피커
- 일반 마이크 V-606LC
-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정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가격 : 135,000원(일반형)
◆가격 : 175,000원(고급형)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